

Vol. 136



HANSEN **한센**

2026 5·6 월호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한센인
복지사업

한센인
인권증진 사업

기획·홍보
사업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존중과 희망으로 이어가는 내일

04 스페셜 리포트

- 제23회 한센인의 날

21 한센 리포트

-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치매예방교육
-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 대중매체 모니터링
- 칠곡마을 자원봉사 우수사례 및 기록관 조성 회의
- 보건요원교육
- 임시이사회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한센탐방

38 지부는 지금

- 경기지부
- 서울·중부지부
- 울산·경남지부

41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44 한국IDEA협회

46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한센공감

49 소통하는 한센

- 익산마을에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_김종윤(익산마을)

한센이모저모

52 한센병 바로알기

- 한센병, 궁금해요!
-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56 정보알리미

-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 10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 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제24권 제3호 통권 제136호 발행일 2026년 5-6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센드 격월간 비매품
※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존중과 희망으로 이어가는 내일



한센 회원 및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따뜻한 햇살과 푸른 생명이 가득한 계절, 회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3회 한센인의 날’ 행사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국 81개 정착마을과 5개 생활시설, 재가 한센인을 비롯한 전국의 한센 가족 여러분, 정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일반 국민 등 3,500여 명이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행사는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진행되어, 오랜만에 서로 반갑게 손을 맞잡고 웃음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이어온 공동체의 힘과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해주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 문금주 의원님, 차규근 의원님, 김춘진 전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하 영상을 통해 한센특별법 개정과 한센인 복지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해주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 더욱 당당히 이야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연합회는 회원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순간을 남겨드리기 위해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사업을 올해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안전한 이동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육과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은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착마을 보건요원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변화하는 보건 환경 속에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연합회는 대중매체 속 잘못된 표현과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센인을 향한 편견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지만,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은 사회를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센인의 삶을 더욱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센 회원 및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시간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왔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총연합회 역시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연합회는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과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센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길용**



‘한센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5월 14일 한센인의 날을 맞아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센인의 날’은 국가 한센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국립소록도병원과 전국 81개 정착마을 및 5개 생활시설, 재가 한센인 등 전국의 한센 가족을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금주 의원, 차규근 의원, 김춘진 전 의원, 정부 관계자 및 관련 단체, 자원봉사자, 일반 국민 등 3,50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하영상을 통해 한센특별법 개정 등 한센인 복지 및 인권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행사에 대한 지지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센인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50여 년간 전국의 정착마을과 한센인 요양시설, 소록도병원 등을 찾아 치과 진료 봉사를 이어오며 한센인의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오성욱(사단법인 구라봉사회)과 한센인의 건강관리, 이동진료 등 한센병의 근원적 퇴치와 보건 향상에 힘써온 박진욱(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8명 등 총 22명이 한센인의 복지증진과 인권회복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지난 2년간 큰 호응을 얻었던 추억사진관 및 행복사진관이 올해도 운영됐다. 사진관은 한센인들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전국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센병박물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소록도를 일군 사람들’을 주제로 한 기획전과 ‘소록도의 예술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행사 당일인 5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기획전 및 특별전에서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을 맞아 고인이 된 입원환자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그들의 삶과 예술적 가치를 기억하는 ‘소록도의 예술 그리고 기억’ 전시가 마련됐다. 또한 환자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오늘날의 소록도를 일군 ‘건설대’를 소개해,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낸 한센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충현 국립소록도병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 어르신들이 현재 삶의 공간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길용 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한센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라는 주제 아래 한센인의 복지증진과 인권회복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한센인 인권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센인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국가한센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웃놀이&노래자랑)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에서는 웃놀이와 노래자랑이 진행되어 한센인과 일반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전국 한센가족 웃놀이 1등



▲ 전국 한센가족 노래자랑 1등

전국 한센가족 웃놀이에는 총 1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친 끝에 안동성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열린 전국 한센가족 노래자랑에서는 12개 팀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열창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전국 한센가족 웃놀이〉	
소속	순위
안동성좌원	1등
성생마을(경기지부)	2등
소록도자치회	3등
도성마을(전남지부)	4등

〈전국 한센가족 노래자랑〉	
소속	순위
여○혁(경북지부 희망마을)	1등
박○래(경남지부 황금마을)	2등
이○옥(소록도자치회)	3등
조○래(경북지부 희망마을)	4등

● 전국 한센가족 윷놀이



● 전국 한센가족 노래자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각계 각처의 축하 인사...

이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금주 국회의원, 차규근 국회의원, 김춘진 前 국회의원 등 정부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주요 내외빈으로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한센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문금주 국회의원 ●

“한센인의 삶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행사가 한센인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차규근 국회의원 ●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 중 하나가 한센인 소송 변호단 활동이었다. 앞으로도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와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김춘진 전 국회의원 ●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한센인과 일반인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 앞으로도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 기여에 감사

제23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센인들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격려에 힘써온 유공자 22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제23회 한센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포상훈격	성명	소속	직급(직위)
대통령표창	오성욱	(사)한국구라봉사회	
	박진우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의무직
국무총리표창	박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사무국장
	유상욱	국립소록도병원	보장구제작 전문경력관 다군
장관표창	김헌일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선도반반장
	김영은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주사보
	윤성원	국립소록도병원	조리서기
	박광균	국립소록도병원	조리서기
	박정욱	국립소록도병원	의료기술서기
	선윤아	충청남도 논산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이소영	충청북도 괴산군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안은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
	이수연	경상남도 진주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
	박진희	경상남도 고성군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종정	엘투이엔지	대표이사
	최순아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정경숙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전문직3급
	김인성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의무직
	조해윤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문직 4급
	김후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문직 4급
	윤태리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간호조무직5급
전희진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임	

●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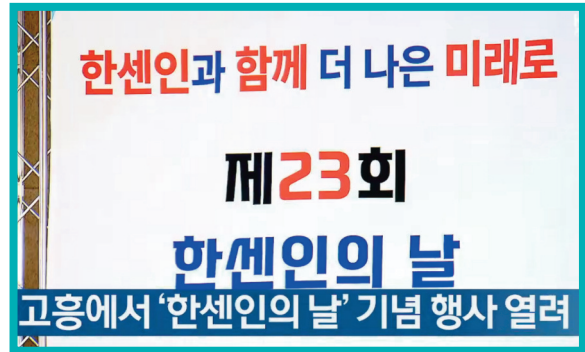


제23회 한센인의 날, 사회적 관심 속 의미 되새겨...

KBS·SBS 등 방송 3사와 40여 개 언론사를 통해 행사 관련 보도 송출

언론사	제목	일시
이투데이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26.05.10
여수MBC	이슈 프리뷰] 6·3 공식 레이스 시작	26.05.10
이투데이	한국한센총연합회,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 행사' 개최	26.05.13
매일일보	고흥군, 한센인의 날 행사 앞두고 안전관리 합동점검	26.05.13
뉴스1	[오늘의 주요일정]보건복지부(5월14일 목요일)	26.05.14
세이프타임즈	[오늘의 주요일정·14일] 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집행 현장점검	26.05.14
뉴스1	국립소록도병원 110주년, 23번째 한센인의 날...“상생, 화합 도모”	26.05.14
뉴스1	정은경 “한센인의 날, 과거 상처 넘어 상생과 화합 계기”	26.05.14
연합뉴스	개원 110주년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26.05.14
이데일리	차별 넘어 연대로...‘한센인의 날’ 되새긴 소록도 역사	26.05.14
SBS뉴스	개원 110주년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26.05.14
전북도민일보	남원시, ‘제23회 한센인의 날’ 맞아 한센인 기념행사 참여 지원	26.05.14
연합뉴스	제23회 한센인의 날	26.05.14
뉴스1	정은경 장관,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 참석	26.05.14
뉴스1	축사하는 정은경 장관	26.05.14
뉴스1	정은경 장관,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 축사	26.05.14
뉴스1	기념 촬영하는 정은경 장관	26.05.14
뉴스핌	정은경 장관,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개원 110주년 기념식 유공자 포상	26.05.14
뉴스핌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개원 110주년 기념식 유공자 포상	26.05.14
뉴스핌	“상생과 화합의 미래로”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개원 110주년 기념식	26.05.14
뉴스핌	의료진 격려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6.05.14
뉴스핌	축사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6.05.14
뉴스핌	정은경 장관,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개원 110주년 기념식 참석	26.05.14
뉴스핌	국립소록도병원 둘러보는 정은경 장관	26.05.14
라포르시안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 맞아...‘소록도 사람들’ 기획 전시	26.05.14
뉴스경남	김해시보건소,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	26.05.14
경남도민일보	김해시보건소, ‘한센인의 날’ 5개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26.05.14

언론사	제목	일시
뉴스타운	김해시보건소, 한센인 화합·소통의 장 마련 지원	26.05.14
광주일보	“서로 손·발 댄주는 한센인 보며 오히려 배웠죠”	26.05.14
KBS	[여기는 전남] 노후관 파열에 늦은 재난 문자…여수 3만 세대 불편	26.05.14
여수·목포·광주 MBC	대통령도 약속한 ‘소록도 이관’, 1년째 ‘제자리걸음’	26.05.14
스포츠동아	고흥군, 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 기념행사 앞두고 합동 안전점검 실시	26.05.15



차별 넘어 연대로... '한센인의 날' 되새긴 소록도 역사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22명 정부포상 수여
소록도 사람들 기획전시 시리즈도 공개

등록 2026-05-14 오전 10:00:03
수정 2026-05-14 오전 10:00:03

가 기

방보경 기자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소록도에서 봉사한 의료진들과 한센인들을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14일 열렸다. 올해 행사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과 맞물려 오랜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개원 110주년 기념식 유공자 포상

기사입력 : 2026년05월14일 14:15 | 최종수정 : 2026년05월14일 14:16

[서울=뉴스핌] 정운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개원 110주년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6.05.14 photo@newsppm.com

제23회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금 현황

소 속	성 명	금 액	소 속	성 명	금 액
고 문	김 정 명	500,000	성산마을		100,000
이 사	김 종 열	200,000	영호마을	서 금 순	100,000
이 사	정 서 기	300,000	현애마을	양 찬 규	100,000
이 사	박 행 남	300,000	거창마을		100,000
이 사	정 기 호	300,000	용호마을	박 현 석	300,000
이 사	곽 수 훈	500,000	경호마을	이 상 구	100,000
서울·중부지부	박 우 택	200,000	협동마을	정 기 환	100,000
경기지부	최 광 현	500,000	영락마을	김 정 운	200,000
전남지부	지 재 운	200,000	도성마을		100,000
전북지부	김 필 중	200,000	성혜마을		200,000
경북지부	김 창 일	300,000	방주교회		300,000
경남지부	이 상 용	200,000	여천마을		100,000
소아마을		200,000	칠곡마을		300,000
소아마을	이 상 용	200,000	낙산2리마을회		200,000
성신마을	김 진 국	100,000	금호마을		100,000
천성마을		200,000	밀알중앙회	이 래 흥	300,000
성광마을		100,000	구평마을	김 인 수	200,000
삼청마을	채 용 태	100,000	신광마을	김 봉 진	150,000
부평마을	김 희 준	300,000	성진마을	장 순 정	100,000
광명마을		200,000	향촌마을	김 형 모	200,000
신촌마을		200,000	정애마을		200,000
금오마을		300,000	희망마을		200,000
고운마을	김 봉 출	100,000	-	이 호 일	50,000
헌인마을	새마을추진위원회	300,000	-	홍 성 수	100,000
예수원교회	윤 화 현	200,000	염광마을		500,000
영민마을	김 형 철	50,000	대구애락원		1,000,000
영민마을	조 상 덕	50,000	성생마을	이길용	2,000,000

※ 위 명단은 무순이며, 성명 또는 금액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총연합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한센인의 날 추억 앨범

● 식전 축하 공연(타고&김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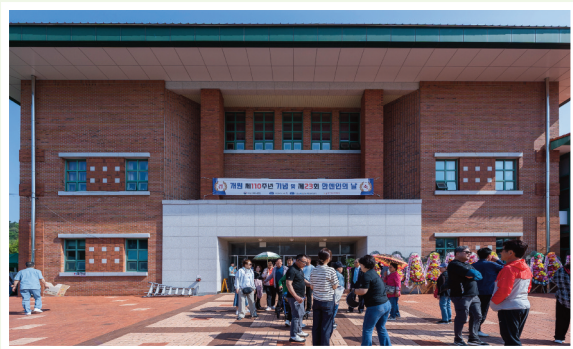
● 기념식



● 한센병 박물관 기획전 및 특별전·병동순회·오찬



● 행사장 외부 풍경





● 추억사진관 1



● 추억사진관 2



추억사진관 3



한 장의 사진에 담은 삶의 기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성료



총연합회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한센인 및 배우자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의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년을 맞이한 한센인들에게 장수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애초 총연합회는 65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며 한센인 및 배우자 등 73명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1차 사업은 4월 30일 익산마을(대표 곽수훈)에서 진행됐으며, 이어 2차 사업은 5월 14일 소록도에서 열린 제23회 한센인의 날 행사 현장에서 실시됐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는 참여를 희망한 한센인 및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이 이뤄졌으며, 헤어·메이크업·의상 지원 등 촬영 전반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노년기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죽음 준비 항목 중 영정사진 준비가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사진 준비가 잘 이루어질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아지고 자아통합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한센인 정착마을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연합회가 실시한 ‘2024년 정착마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착마을 주민의 95.5%가 66세 이상 고령자이며, 63.5%가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어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81.5%가 무직 상태이고, 약 80%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장수사진 촬영과 같은 복지서비스 접근에도 제약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사업은 한센인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길용 회장은 “장수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 분 한 분의 삶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한센인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되고 존중받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 정착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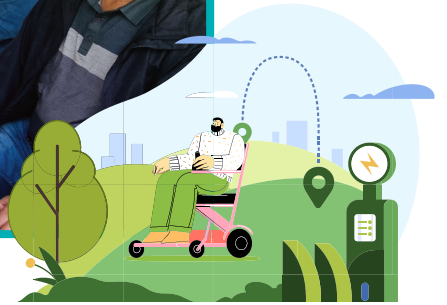
● 익산마을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 소록도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백신,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총연합회는 4월 29일 경호마을(대표 이상구)과 성애마을(대표 김기준), 6월 17일 삼청마을(대표 채용태) 한센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한센병으로 인한 상흔과 고령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신체가 불편한 한센인 어르신들의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총연합회는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안전 관련 사항을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종류별 특성과 활용법을 안내하고, 사고 유형과 대처 방법을 공유했으며 올바른 취급 방법과 안전한 사용 요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보유한 전동보장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현장 수리 서비스도 제공했다.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전동스쿠터를 탄 지 3년이 되었는데 타 이어 공기압 체크나 배터리 관리법을 오늘 처음 제대로 배웠다.”라며 “직접 와서 브레이크와 바퀴도 꼼꼼히 봐주셔서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이번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이 단순한 안전 교육과 기계 점검을 넘어 한센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센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치매예방교육

새싹이 돋아나던 지난 4월, 우리 총연합회가 시작한 '2026년 치매예방교육'이 어느덧 두 달여의 과정을 이어오며 한센인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4월 3일 낙원마을, 4월 16일 대명마을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어르신들은 매주 교육에 참여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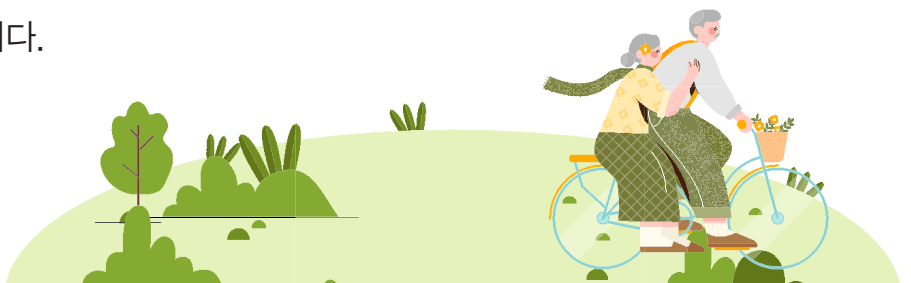
처음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한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경로당을 찾았다. 특히 장애와 고령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적고, 인지 기능 저하와 고립감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많아 총연합회는 치매 예방과 정서적 활력 증진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치매예방교육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된 프로그램은 인지 체조, 기억력 훈련, 시청각 자극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어르신들은 강사의 구령에 맞춰 손가락과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인지 체조를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지 체조 활동을 통해 신체 움직임과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으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대명마을의 한 어르신은 “뇌세포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낙원마을의 한 어르신도 “처음에는 치매가 두려워서 참여했는데 이제는 함께 교육받는 재미에 살맛이 난다. 아들 전화번호도 다시 외우게 되었고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남은 교육 과정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안전하고 알차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한센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낙원마을 치매예방교육



● 대명마을 치매예방교육



기분 좋은 변화로 일상을 바꾸는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한센인의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이 5월 6일 황금마을(대표 이덕구)에서 시작됐다.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한센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체 건강 증진과 낙상 예방 교육을 비롯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노년기에 필요한 내용을 균형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편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교육에서는 신체적 제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위축되기 쉬운 한센인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황금마을의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지면서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스마트폰 교육도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센인 정착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별 표현 개선 위한 모니터링 활동 지속

우리 총연합회는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지속·강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 대중매체,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여전히 과거의 차별적 표현과 부정확한 용어가 사용되면서 한센인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왜곡된 사회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총연합회는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총연합회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대중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차별적 표현을 바로잡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언론과 방송, 인터넷 플랫폼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서 책임 있는 표현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한센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총연합회는 부적절한 표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과 언론사 등에 즉각적인 시정 요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사 및 콘텐츠 수정, 주석 병기 등 여러 개선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차별적 표현과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질병의 이력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2026년 4~5월 대중매체 모니터링 현황 : 18건

언론사명	기사 발행일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여성신문	2026. 4. 1.	'젊은 그대' 김수철의 첫 전시 '소리 그림'	나환자	한센인
LG헬로비전	2026. 4. 9.	구약성경 시대에 전염병 환자 격리와 관리를 제사장이 맡았다	나병	학명 병기
헤럴드경제	2026. 4. 9.	"존재 본질 찾던 헤가·승찬 스님"... '선종 사찰' 중국 호남성에서 안휘성까지	나병	한센병
일요시사	2026. 4. 13.	'몽키하우스' 미군 위안부 수용소 (21)기이한 별세계 '블루문'	문0이	한센인
제주도민일보	2026. 4. 15.	국가무형유산·창작공연 이어져	문0이	한센인 병기
한국기독교공보	2026. 4. 16.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나병	한센병
단디뉴스	2026. 4. 18.	진주오광대, "예술마을 사랑방, 사랑해 봄" 개설	문0이	한센인 병기
디지털타임스	2026. 4. 19.	[논설실의 서거] 삶의 연기(緣起) 읊은 김홍조의 두 번째 시집	문0병	내용 삭제
아트인사이트	2026. 4. 21.	소거 불능의 궤적, 백색망령 장송곡 - 모래그릇	나병	한센인
국민일보	2026. 4. 26.	혼자 맞던 생일 끝... 주민과 함께한 장애인 이웃 '생파'	나병	한센병
뉴스톱	2026. 4. 27.	큐리언트, 글로벌 컨소 통해 '텔라세백' 승인 속도낸다	나병	한센병
남도일보	2026. 4. 29.	광주 서서평 길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웨핑	나환자	한센인
시선뉴스	2026. 4. 29.	악마의 옷에서 귀족의 상징까지... 옷의 무늬와 패턴 속에 숨겨진 역사	나병	한센병
국민일보	2026. 5. 6.	'갓생' 살려다 영혼 탈곡된 당신에게... 팀 켈러가 말하는 '죄'의 정체	나병	한센병
경향신문	2026. 5. 6.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나병	한센병
한겨레	2026. 5. 8.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나병	한센병 병기
한국강사신문	2026. 5. 21.	[이서윤의 문장연구소] 마음 속의 달, 현실 속의 6펜스	나병	한센병
노컷뉴스	2026. 5. 22.	'울릉도 슈바이처' 이일선 기념사업회 창립식 개최	나병환자	한센인

칠곡마을 자원봉사 우수사례 확산 및 기록관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6월 8일 서울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지역활력 자원봉사 우수사례(칠곡마을 사례) 확산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칠곡군자원봉사센터가 칠곡마을에서 추진한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칠곡마을(연호2리) 기록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의에는 총연합회 이사인 칠곡마을 흥완근 대표와 총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윤순화 사무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태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센인 정착마을이 오랜 기간 겪어온 사회적 편견과 고립의 역사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마을에 어떠한 변화와 회복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칠곡군자원봉사센터는 칠곡마을에서 추진한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2025년 「찾아라! 칠곡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진입로 개선, 전기 안전 점검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했으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지역활력 스케일업 공모사업」을 통해 건강체조, 난타 교육 등 다양한 문화보급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신동성당 연호공소를 활용한 칠곡마을(연호2리) 기록관 조성을 위한 아카이빙 활동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렸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마을의 변화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주민들이 다른 지역 마을과 교류하고 난타 공연을 직접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원봉사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칠곡마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칠곡마을은 오는 9월 개최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에 경북 대표 마을 중 하나로 참가하며 마을의 변화와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제3회 사회적 가치 페스타」 지역활력 스케일업 포럼에서도 자원봉사 우수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 개선에서 시작된 칠곡마을의 자원봉사는 이제 마을의 기억과 역사를 보존하는 기록관 조성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기록관이 완성되어 한센인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전국 각지의 한센인 정착마을에도 마을 기록관 조성이 확대되어 각 지역이 간직한 삶의 흔적과 역사가 보존되고,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 대한민국 한센인의 역사와 인권 회복을 상징하는 전국 규모의 한센인 기념관 조성을 향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한센인 건강 지킴이 양성 위한 보건요원교육 진행



총연합회는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정착마을 한센인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인 ‘보건요원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정착마을 한센인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건강관리와 응급 상황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총연합회는 보건요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착마을의 건강 안전망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가천대 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관리 교육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노인의 낙상사고 위험 - 원인과 대처법’, ‘주요 응급상황 및 대처법’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총연합회는 특히 고령의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낙상이 단순 부상을 넘어 장기적인 거동 불편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낙상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심정지, 기도 폐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초기 대응 방법을 교육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건요원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 반복 시청도 가능해 교육 이해도와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정착마을 한센인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건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센인 복지 향상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논의



총연합회는 6월 18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개최, 회장 인사, 추진 사업 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총연합회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추진 사업보고 안건으로 ‘제2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 기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결과가 공유되었다. 해당 행사는 한센인과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어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한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록도의 고흥군 이관과 관련하여, 반대 등의 의견을 공유하고, 한센인의 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 방안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센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 ①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 ②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③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 ④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 ⑤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6. 5. 27. 기준 150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40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경기지역 정착마을 주민 위한 생필품 나눔 실시



총연합회 산하 경기지부(지부장 최광현)는 4월 27일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로부터 생필품인 옛날 누룽지 320박스를 지원받아 경기지부 산하 정착마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광현 경기지부장을 비롯해 마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준비된 물품은 경기지역 한센인 정착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전달됐다.

이번 지원은 정착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최광현 경기지부장은 “정성껏 지원해주신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정착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정착마을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 감염병관리과, 청원마을 방문해 한센인 고충 청취



총연합회 산하 서울·중부지부(지부장 박우택) 소속 청원마을(대표 장경선)을 방문한 충청북도 관계자들이 한센인 정착마을의 현안을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8일 충청북도 감염병관리과 하미경 팀장과 서은영 주무관은 청원마을을 방문해 마을 운영 현황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청원마을 장경선 대표와 주민 2인, 박우택 서울·중부지부장, 김창수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한센인 정착마을의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정착마을의 생활환경과 복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5월 가정의 달 기념 경로행사 돼지고기 전달



총연합회 산하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는 울산·경남 지역 한센인 정착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행사를 마련하며 따뜻한 나눔의 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지역 내 여러 정착마을에 전달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오랜 시간 정착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관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산·경남지부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담아 음식을 대접하며,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웃고 교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상용 지부장은 “이번 경로행사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라며 “정착마을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한센인 정착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정을 전하며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따뜻한 봄날, 어르신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는 봄을 맞아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원예 프로그램 운영



4월 23일, 어르신들과 함께 원예프로그램으로 꽃 심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어르신들은 준비된 꽃모종과 화분에 직접 흙을 담고 정성스럽게 꽃을 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서로의 화분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직접 완성한 화분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 느낄 수 있었다.



● 봄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2일에 걸쳐 봄나들이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4월 13일에는 1·2층 어르신들과 함께 문암생태공원을 방문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3층 와상 어르신들과 오창호수공원을 찾아 봄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활짝 핀 꽃과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오랜만의 바깥나들이에 큰 즐거움을 보이셨고, 서로 담소를 나누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와상 어르신들에게도 안전하게 외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어버이날 행사 개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4층 강당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직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였다. 또한 모두 함께 ‘어머니의 마음’을 합창하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 내내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과 정겨운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점심 식사로는 신선한 회를 준비해 함께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다.

송정하 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다양한 여가·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외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IDEA네팔, 한센인 차별법 헌법소원 승소, 네팔 대법원 “차별 조항 개정”판결

지난 4월 29일, IDEA Nepal(회장 드네쉬 바스넷)은 약 2년간 진행된 네팔 민법 제71조 제2항(c) 관련 한센인 차별법 헌법소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IDEA 네팔은 2024년 9월 15일, IDEA 네팔 자문위원회와 IDEA 네팔 이사 당कु마리 타파 마가르(Dhankumari Thapa Magar) 그리고 법률대리인 프라할라드 쿠마르 마하트(Prallad Kumar Maht) 변호사, 마헤시 마하트(Mahesh Maht) 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IDEA 네팔은 한센병을 이유로 결혼을 금지하거나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네팔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2017년 민법에 포함된 차별적 조항, 특히 한센병에 영향받은 사람과의 결혼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역사적인 최종 판결을 내렸다.



▲ 헌법소원 승소 후 기념촬영, 좌측 첫번째가 드네쉬 바스넷 회장

IDEA 네팔의 드네쉬 바스넷 회장과 직전 회장 아마르 티말시나는 “정상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 그리고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여러분의 협력이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상권 회장, 오문수 작가 장편소설 『올무에 걸린 아기사슴』 출간 기념 북콘서트 참석



▲ 한국IDEA협회 사업 홍보와 책 출간
축하 인사를 하는 정상권 회장

한국IDEA협회 정상권 회장은 지난 5월 9일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오문수 작가의 장편소설 『올무에 걸린 아기사슴』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오문수 작가는 저자와의 대담을 통해 한센 가족으로 살아오며 겪어야 했던 아픈 가족사를 공개했다. 또한 소설 속 실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센인들이 겪어온 고통과 한을 전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 차별과 편견의 부당함, 인간 존엄성 침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밝혔다.

『올무에 걸린 아기사슴』은 총 9장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으로, 90% 이상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논픽션 소설이다. 오문수 작가는 집필 과정에서 9장 주인공인 협회 정상권 회장에게 추천사를 요청했으며, 정상권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5년간 4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참고해 출간된 『올무에 걸린 아기사슴』은 한센병의 올바른 치료와 퇴치 방법은 물론, 잘못된 인습과 편견을 바로잡는 데 있어 일반 독자와 한센병을 경험한 당사자 모두에게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상권 회장은 북콘서트 축사를 통해 “지구촌 1,600만 한센인의 인권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국제IDEA협회와 한국IDEA협회를 설립하고, 30여 년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오문수 작가의 이번 책이 이러한 노력에 더욱 큰 힘이 되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고, 전 세계 인류가 한센병의 고통과 편견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진심으로 출간을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동행... '모든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전라남도 소록도는 오랜 세월 한센인들의 삶과 아픔이 함께해 온 곳이다.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극심했던 시절, 소록도는 고통과 슬픔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한 소록도에 196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두 명의 젊은 간호사가 찾아왔다. 바로 마리안느 스토거와 마가렛 피사렉이다.

두 분은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환우들의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 평생을 소록도와 함께했다. 결핵병동과 정신병동, 영아원에 시각장애인 병동 등 열악한 시설 개선에 힘썼으며, 병이 치료된 한센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도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며 소록도 환우들을 위한 의료와 복지 향상에 헌신했다.

43년 동안 사랑과 봉사의 삶을 이어온 두 분은 2005년 건강 악화로 조용히 소록도를 떠났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없이, 한국에 처음 올 때 가져왔던 가방 하나만 들고 말없이 돌아간 두 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러한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다. 2015년 소록도 한센인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으로 시작된 법인은 현재 국내외 다양한 나눔과 선양 사업을 펼치며 두 분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법인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생활연금 지원 ▲두 분의 삶과 봉사정신 선양 ▲국내외 소외계층 및 빈곤국가 지원 ▲자립지원 사업 ▲‘마리안느와 마가렛 봉사대상’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과 기념관 운영, 청소년 봉사학교, 장학사업, 국제교류 사업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여자대학생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지원, 콩고 산모 지원사업, 인도·케냐·미얀마 지원사업 등 해외 지원사업도 활발히 이어가며 지구촌 곳곳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고흥군과 함께 ‘마리안느와 마가렛 봉사대상’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숨은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다.



법인의 활동은 사회적으로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 2017년 제27회 한국 가톨릭 매스컵 대상 특별상, 2021년 성옥상, 2024년 제11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등을 수상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제작 및 교육용 라이선스 보급, 노벨평화상 추천 운동, 기념관 특별전시와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을 통해 두 분의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매년 한센인의 날 행사 기간 동안 전국 한센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환대와 숙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덕분에 많은 회원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한센가족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두 분의 숭고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익산마을에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

김종윤(익산마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익산마을 초입에 우뚝 서 있는 큰빛주간보호센터 앞을 지나면 이른 아침부터 정겨운 찬송 소리가 들려온다. 꼬부랑 허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모여 북을 치고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연다.

찬송 소리만 들리는 것은 아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때 젊음을 풍미했던 유행가도 흘러나온다.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고, 따라 부르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점점 늙고 쇠해가는 익산마을에서 큰빛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곳은 늘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하다. 친구들과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허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프네” 하며 서로의 아픈 사정을 털어놓는 사랑방이기도 하다. 때로는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윗놀이하고, 노래자랑과 제기차기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무료하고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함께 웃으며 견뎌내는 곳이다.



주간보호센터를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담하고 포근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천국 대합실과 같은 ‘큰빛요양원’이다. 이곳은 병원의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대신, 내가 살아온 고향 마을에서 동료들과 함께 오순도순 지내다가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다.

요양원이라고 해서 마냥 침울한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손발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보고 듣고 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진다. 한쪽에 놓인 노래방 기계는 이곳에도 웃음과 흥겨움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며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익산마을 어르신들에게, 큰빛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작은 위로이자 삶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이 터를 일구어 온 사람이 있다. 바로 익산마을 베델교회의 문선식 목사이다. 목사님이 익산농장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4년째가 되어간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척박한 마을 안에서 복지의 씨앗을 심고 오늘의 큰빛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세워오기까지의 문선식 목사의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었다. 그러나 늘 자신을 드러내기를 사양하셨기에 그 마음을 미뤄두고 있었다. 이제야 조심스레 펜을 든다.

이번 글을 시작으로, 긴 세월 동안 익산마을에서 복지를 일구어온 문선식 목사의 삶과 발자취를 차근차근 기록해보고자 한다.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Q&A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5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놓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1 요양·돌봄 서비스 지원

- ☑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제공내용: 일상생활 지원 및 요양(돌봄)서비스
- ☑ 제공기관

기관명	지역	입소 담당
성라자로마을	경기 의왕시	031-452-5655
여수애양평안요양소	전남 여주시	061-682-9595
안동성좌원	경북 안동시	054-852-1448
산청성심원	경남 산청군	055-973-696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충북 오창읍	043-241-1300

- ☑ 입소비 발생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2 생계비 지원

- ☑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활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제외
- ☑ 제공내용: 매달 약19만원(2025년 기준) 지원(본인통장)
- ☑ 제공기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

3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

- ☑ 대상자: 재활수술 및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제공내용 및 제공기관
 - 연구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등 지원
 - 연구원·지부: 의수족, 보조기, 족지, 특수화 등 맞춤형 제작 지원
- ☑ 안내 및 지원 가능문의: 진료받는 복지협회 문의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 한센인 복지 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장수사진),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 기획·홍보 사업: 한센인 구술 기록화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5 피해보상 청구

- ☑ 대상자: 일제 강점기하 가족(2세,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피해자
- ☑ 제공내용: 피해보상 청구 관련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페이지 참조
- ☑ 안내 및 문의: 한국한센총연합회 1566-2339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원 안내문' 홍보물

아침이 든든해야 하루가 든든!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 10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 끼이다.

건강 전문가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 포만감, 신진대사, 심지어 외모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영양과 포만감, 간편함을 모두 잡은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를 소개해 본다.



현미콩밥: 아침 '밥파'는 현미콩밥!

- 현미: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
- 콩: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 단백질과 영양의 균형
- 현미콩밥은 씹는 즐거움과 함께 과식 예방에도 효과적
- 현미밥이나 콩밥만으로도 좋음



통밀빵: 아침 '빵파'는 통밀빵!

- 통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사용해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
-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에너지가 오래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
- 씹는 식감이 좋고, 땅콩버터 등 건강한 토핑과 곁들이면 영양과 맛이 더욱 상승
- 통밀빵 단독 또는 다양한 재료와 함께 즐기기에 좋음



샐러드: 아침 '채소파'는 샐러드!

-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달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재료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
- 소화가 잘되고,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한 번에 보충
- 가볍고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 추천
- 드레싱은 가볍게, 재료는 다양하게 조합 가능
- * 드레싱 추천: 소금+후추+올리브오일+레몬즙 또는 발사믹 식초



두부: 아침 '단백질파'는 두부!

- 식물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 아침에 부담이 없음
- 칼슘, 철분, 이소플라본 등 무기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면역력, 뼈 건강에 도움
- 부드러운 식감으로 누구나 쉽게 섭취 가능
- 구이나 찜, 샐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
- 현미콩밥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도 좋음



삶은 달걀: 아침 '간편파'는 삶은 달걀!

-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 촉진과 근육 유지에 탁월
-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에 제격
- 포만감이 오래가고, 간식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
- 다른 재료와 곁들여 샐러드, 샌드위치로도 응용 가능
- 달걀은 달걀말이, 달걀프라이 등으로 만들어 반찬으로 좋음



사과, 바나나: 아침 '과일파'는 사과와 바나나!

- 사과: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
- 바나나: 에너지원으로 훌륭하며, 칼륨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
- 간편하게 들고 다니며 먹을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적합
- * 바나나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위가 예민한 경우 공복 섭취 주의



고구마, 감자: 아침 '구황작물파'는 고구마와 감자!

- 감자: 소화가 잘되고,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 아침 식사로 적합
- 고구마: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포만감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음
- 찜, 구이 등 간단한 조리로 준비 가능
- * 위가 약한 경우 고구마 공복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음



그릭요거트: 아침 '유산균파'는 그릭요거트!

- 고단백·저탄수화물 식품으로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
- 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 소화가 잘되고 부담이 적음
- 견과류, 과일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과 영양이 배가
- 디저트처럼 즐기기에 좋고, 드레싱 대용으로도 좋음



단호박라떼: 아침 '라떼파'는 단호박라떼!

- 단호박: 식이섬유와 비타민A가 풍부해 포만감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
- 우유와 함께 라떼로 즐기면 부드럽고 속이 편안
-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맛으로 아침 대용으로 적합
- 간단히 믹서로 만들 수 있어 준비가 쉬움

*** 단호박라떼 만들기**

- 1) 단호박은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한 뒤, 껍질째 혹은 껍질을 벗겨 찜기에 10~15분 쪄줍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 랩을 씌워 7~8분 돌려도 됩니다.
- 2) 찐 단호박 150~200g, 따뜻한 우유 200~300ml, 꿀 또는 아가베시럽 1큰술, 소금 한두 꼬집을 믹서기에 넣습니다.
- 3) 모든 재료를 곱게 갈아줍니다. 단호박이 달지 않으면 꿀이나 시럽을 조금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닭가슴살 오곡죽: 아침 '죽파'는 닭가슴살오곡죽!

- 오곡죽: 다양한 곡물의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됨
- 닭가슴살: 단백질 보충까지 완벽하게 챙길 수 있음
- 가볍지만, 든든한 한 끼로 적합
- 아침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고 싶을 때 추천

아침에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 정제된 탄수화물: 흰 빵, 과자, 시리얼 등
 -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음
-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 나트륨, 방부제, 포화지방이 많아 심장 건강에 해롭고, 아침 공복 소화 불량 유발
- 단 음료: 단 커피, 과일주스, 가공 요거트
 - 당분이 높은 음료와 가공 요거트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에너지 저하와 피로감을 유발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색깔과 단어가 일치하면 ○, 틀리면 ×로 표시하여 보세요.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	[×]	[]	[]	[]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	[]	[]	[]	[]






				
보라색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	[]	[]	[]	[]



아래 <보기>를 보고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를 아래 빈칸에 넣어보세요.

				
3	5	1	4	2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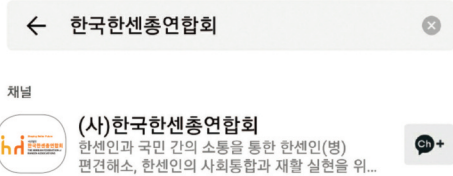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친구 81 명

한센인과 국민 간의 소통을 통한 한센인(병) 편견해소, 한센인의 사회통합과 재활 실현을 위한 단체입니다.

채팅하기

채널 추가

소식

정보

상담원 채팅

월,화,수,목,금 09:00~18:00

기관/단체 > 복지

<http://www.hansen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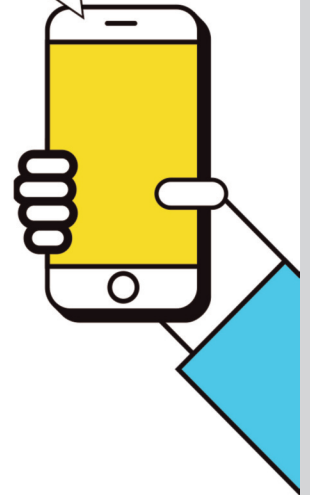
02-1566-2339

hansen@hansenkorea.org

연락처시대에도
당신의 **웃음**으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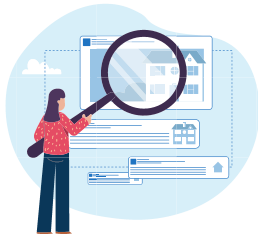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학술·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15-5501	(032)515-55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2-3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인권개선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실천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1:1 개별 서비스
 요양·보호·여가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큰 베품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